

LPGA투어 개막... 박인비 우승 '조준'

20일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자만 출전하는 '왕중왕전'... 한국 선수 4명 출격

2022년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막을 올린다. 오는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가 올해 개막전이다.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었던 LPGA는 올해 역대 최다 상금을 내걸고 '중흥'에 나선다. 올해 PGA투어는 34개 대회를 치르며 총상금은 무려 9020만 달러(약 1075억 원)에 이른다. LPGA투어 시즌 총상금은 8000만 달러도 넘긴 적이 없었는데, 곧바로 9000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나흘 내내 스포츠계, 연예계 등 저명인사들과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셀레브리티 프로암 방식으로 치러지는 게 특징이다. 프로 선수들은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가르지만, 저명인사끼리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을 경기를 펼친다.

이 대회는 최근 2년 LPGA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하는 '왕중왕전'이다. 출전 선수는 29명이다. 한국 선수 출전자는 박인비(34), 박희영(35), 이미림(32), 김아림(27) 등 4명뿐이다. 고진영(27), 김세영(29), 김효주(27) 등은 출전하지 않는다.

작년 10월 BMW 챔피언십을 마치고 긴 휴식에 들어갔던 박인비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개막전부터 출격한다. 박인비는 작년 기아 클래식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다. 박인비는 출전 29명 가운데 최다승(21승)을 올렸고, 세계랭킹에서도 벨리 코르다(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다. 박인비는 2년 전 이 대회 연장전에 저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돌아온 김천 "완벽 조합 찾아라"

K리그1 복귀 새 판 짜기 시동 막장 전력·국가대표 급출비

한 시즌 만에 프로축구 K리그1로 돌아온 김천 상무 김태완 감독(사진)은 '새 판 짜기'에 여념이 없다. 선수들의 입대와 전역으로 스쿼드 변동이 큰 만큼, 신병과 기존 선수들의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게 김 감독의 과제다.

김천에선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함께 우승을 일군 박동진(서울)과 허웅준(포항), 정재희(전남), 오현규(수원) 등 12명이 지난해 말 대거 전역했고, 김지현(울산), 강윤성(제주), 권장훈(수원), 이영재(수원FC)가 새로 입대했다.

김태완 감독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다른 팀은 센터백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우리 선수들을 임대 보내드릴 정도"라며 웃고 "선수들이 너무 좋다. 센터백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좋은 선수들로 강한 시너지를 내는 일이다. 그의 말대로 다소 아쉬운 측면을 보완할 조합을 찾아야 한다.

선수들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팀을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도 부진을 딛고 2부리그 우승까지 경험한 만큼 김 감독은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작년 초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완벽했던 시즌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함께 이겨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시즌 초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으니 선수들과 잘 이겨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멤버들이 최고의 멤버다. 과거의 멤버들은 두 번째다. 이 선수들이 나가기 전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 최종 확정

20일 쇼트트랙 출전 선수 결정 팀 워크는 더 좋아졌다는 평가

심석희(25·서울시청)의 징계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 선수를 확정한다.

연맹은 부상 회복 중인 김지유(경기 일반)의 대표팀 승선 여부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난해 5월에 열렸다.

심석희와 최민정(성남시청), 김지유가 선발전 1~3위를 차지해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했고, 이유빈(연세대)과 김아람(고양시청)은 4~5위를 기록해 단체전 출전권을 얻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A코치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팀에서 배제됐다.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18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이에 선발전 4위 이유빈이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을 뛰고, 선발전 6위를 기록한 '대체 선수' 서희민(고려대)이 단체전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

아울러 김지유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발목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쓰러졌다.

만약 김지유마저 탈락하면 선발전 5위 김아람이 개인전과 단체전, 선발전 7위 박지윤(한국체대)이 단체전 멤버로 합세한다.

결과적으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전력은 떨어지게 됐다.

객관적인 전력상 심석희, 최민정, 김지유는 모두 올림픽 개인 종목 우승 후보로 꼽혀왔다.

다만 이유빈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며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다. 그는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기대감을 높였다.



주목 다짐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NHL 하키 경기 로스앤젤레스 킹스와 산호세 사크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주목 다짐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산호세는 효율적인 경기운영으로 스코어 6-2 완승을 거뒀다.

FIFA 올해의 선수에 레반도프스키

메시 따돌리고 2년 연속 수상

폴 기록을 49년 만에 경신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자를 정하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모두 1위에 올랐다.

다만 팬 투표에서는 최하위인 3위에 머물렀으나 이 4개 부문 투표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한 최종 점수에서 48점을 얻어 44점의 메시, 39점의 살라흐를 앞섰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축구 전민지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또 하나의 권위 있는 축구 시상식 발롱도르에서 메시에게 밀려 빌려가 1972년에 세운 연간 42

골 기록을 49년 만에 경신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자를 정하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모두 1위에 올랐다.

다만 팬 투표에서는 최하위인 3위에 머물렀으나 이 4개 부문 투표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한 최종 점수에서 48점을 얻어 44점의 메시, 39점의 살라흐를 앞섰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축구 전민지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또 하나의 권위 있는 축구 시상식 발롱도르에서 메시에게 밀려 빌려가 1972년에 세운 연간 42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돋움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1:50 불만해도 괜찮아 시즌2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학교 2021(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주라킵스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설마는 오늘 11:00 예나그날리 11:30 스페이스 동요보급	8:00 딩동댕 유치원 8:30 한글용사 아이야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5:25 클라시 e 16:00 마사와 꿈 16:30 덩동명 유치원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9:00 레이더고 19:50 문재원 유치원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네트워킹통신 아미도 마지막 존재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열린채널 15:10 어린이 동물터비 15:40 팔도방송 스페셜 16:00 사시건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학교 2021(재) 13: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인명(재) 16:00 UHD 환경스페셜(재) 17: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17:15 뽀빠리 17:30 꽃집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트레이서(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빠리 좋아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시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14:00 뉴스브리핑 14:00 내모세고(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전국 TOP10 기요소	7:00 김태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창에게 김석출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섬 15:00 CBS 뉴스 17:05 시사제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김은영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30 집중진단 제주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패왕기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 21:30 우리끼리 작전타임 22:40 갯파더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20주년 특별판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22:30 라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당신이 속하는 사이 3	8:00 특목TV더터 9:00 KCTV 뉴스 9:30 석학강좌 10:30 탐나는 보이스 13:10 KCTV 디류스페셜 14:30 세계의 99방살 16:00 KCTV 건강톡톡 16:10 KCTV 디류스페셜 17:40 KCTV VOD 세세마을사 18:30 세계의 99방살 19:00 KCTV 뉴스 19:50 불복체인IN제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9일

김종상 지단(해마)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용감이 필요. 투자도 타이밍이 있다. 72년 부모나 처의 도움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투자하라. 84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기쁨으로 좌우되는 것은 금물.

37년 오늘을 유쾌하게 보내려 노력하라. 49년 늦게 귀가하면 불리. 가정에 불화가 온다. 61년 언변, 말로 하는 직업은 인정받고 수익 증대. 73년 주변정리 또는 정돈이 일을 향상 시킨다. 사업장 주변을 깨끗이 하라. 85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설계 필요하다.

38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50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수 있는 기회가 온다. 62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7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하나 방해자가 생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86년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준비할 것.

3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히려 인정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5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6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75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87년 전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도 인정받는다.

40년 아랫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2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64년 부부간에 논쟁이나 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다. 76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상의한다. 88년 상대를 먼저 배려함이 나를 인정받게 한다.

41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거나 인심 쓸 일이 생긴다. 53년 타인과의 비교함은 상대와의 다툼이 되니 언행 조심. 65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 77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하라. 89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42년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걱정이 생긴다. 54년 고집과 자존심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존중과 화합을 병행하라. 66년 우환으로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78년 취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심사숙고. 90년 소화기경기에 무리가 오니 소화기 질환에 음식 섭취해야.

43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득이 될 수 있다. 55년 분실 또는 실수가 있으니 금전 또는 지갑보관을 잘 해야 한다. 67년 구매충동이 생기고 의욕한 일이 생긴다. 79년 서두르던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 대출은 불리. 91년 가족간의 의사 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 되는 날.

44년 도움이 있으나 마음이 바쁘고, 몸이 분주하다. 결과가 있다. 56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68년 재물 손재수가 있다. 외출시 문단속 철저. 현금 გადა 지급 금지. 80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92년 청춘을 아끼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화복을 도모하라.

45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길하다. 부모나 처,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69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서 곧 망신이 된다.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업무나 성과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 93년 불만이나 원하는 것은 가슴에 묻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46년 자리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눌일이 생긴다. 58년 생각이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70년 업무나 취업에 대한 생산성있는 소식을 접한다. 재물이 길하다. 82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경마 도박에는 관심 갖지 마라. 94년 활동이 많고 자녀에 관한 일로 분주. 외부 활동에서 이익이 온다.

47년 업무과다에 따른 스트레스가 따른다. 도움을 받아라. 59년 금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부른다. 71년 자녀문제나 처가의 사소한 일로 가정불화. 83년 부모님이나 윗분들의 충고가 있으니 삶의 지표로 삼자. 95년 상대와 인정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